

# ISSUE & FOCUS

Newsletter 2018-2(2)

## 평창올림픽 중간 평가 평양의 체제선전장이 되어버린 초반 평창올림픽

조평세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KU트루스포럼 대표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평창올림픽이 반환점을 돌면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야기됐던 초반의 정치적 논쟁은 사라지고 올림픽 본연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논쟁은 개최국 이점을 이용해서 평창올림픽을 경색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일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열기를 살려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이 후반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 전후의 풍경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중간 평가를 통해 살펴본다.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23차 IOC총회에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적힌 카드를 돌리며 '풍창'을 외쳤다.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이명박대통령,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김연아 선수 등 올림픽 유치위원회 한국팀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삼수에 걸쳐 그렇게 눈물

과 땀으로 힘겹게 얻어낸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초반까지는 평양 김씨왕조 세습전체주의의 체제선전장으로 둔갑했다.

젊은 층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단연 남북단일팀 구성이었다. 행사를 불과 한달 앞두고 결정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때문에 그 동안 올림픽 출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당혹해 했다. 갑작스런 북한 팀 합류로 우리 팀의 호흡은 물론이고 집중력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개개인의 피와 땀과 노력이 이렇게 정치에 희생되는 모습은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만연한 일이다. 작년 11월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란의 우승이 유망했던 레슬링선수가 이스라엘 선수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패배했다. 이들 독재국가에선 스포츠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모든 영역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말살하는 정치의 연속일 뿐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올림픽정신은 개개인의 스포츠를 통해 국가들의 간극을 좁혀 평화를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받는 불이익과 피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원래 스포츠나 국제행사를 통해 체제를 선전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다. 북한은 스포츠와 문화교류 등을 통해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듯이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양 체제 선전의 장으로 만들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몰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나아가 남한에 대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선동구호로 대표되는 민족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혁명’ 통일을 꾀하려 했다.

문제는 그런 북한정권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의도대로 평양 김정은 정권의 체제선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회식 때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애국가를 지워버렸다. 대신 연방제통일을 의미하는 ‘한반도기’를 들고 통진당 이석기가 국가(國歌)라고 주장했던 ‘아리랑’을 연주하도록 했다. 아예 북한정권의 체제선전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송월을 조선시대 때 중국의 칙사를 모시듯 접대하며 평창의 시설과 선수촌을 시찰하도록 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 6년 동안 단 한번도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협력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핵미사일 도발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한 최고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대표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선전장이자, 북한인권유린의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팀이 공동훈련을 하도록 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남북 단일팀은 물론 북한정권의 올림픽 참가 자체를 반대했어야 했다. 북한은 현재 인류 최대의 인권유린국이자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수많은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강패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행사 참가는 올림픽정신은 물론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고수하는 20여년 동안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사교전체주의 집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개인말살을 자행해왔다. 북한정권은 그들의 반인류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실제적인 적화통일 시도를 지난 70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의 오래된 전략이고 볼 보듯 뻔한 시나리오에 수 십년 간 당하고도 또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안보불감증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는 집단 기억상실증과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하나의 깃발 아래 감성적인 민족민요를 울리고 비둘기를 날린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얻은 평화는 적 앞에 굴종하는 노예의 평화이며 가짜 평화이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관의 수호와 그 적을 분명히 직시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이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관철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진짜 평화”를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둘기를 날리고 만국기 아래 진정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